



2026 추석 가정예배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하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2026년 추석 가정 예배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날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기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125:1~2 다 같 이

¹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²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신앙고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 같 이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을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신명기 16:13~15 말 은 이

¹³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¹⁴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¹⁵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설 교 함께 즐거워하되 말 은 이

합 심 기 도 가정을 위해 다 갈 이

찬 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 갈 이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2.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3.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못 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기 도 문 다 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석은 수확의 계절을 맞아, 풍년을 기뻐하는 명절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삼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던 초막절이 이와 비슷하네,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보며 추석을 지내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초막절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하시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수확의 즐거움을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어떤 이들과 함께 누리기를 바라실까요?

첫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길 바라십니다. 본문 15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와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길 바라십니다. 본문 14절에는, 초막절에 함께 즐거워해야 할 대상들이 여럿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는 ‘네 자녀’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온 가족’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함께 즐거워할 대상에는 온 가족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함께 예배하고, 감사하며, 같이 식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길 바라십니다. 이 또한 본문 14절에 나오는 또 다른 대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웃은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로,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하는 이웃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수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었던 자들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돌아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확의 즐거움을 주시며, 그 기쁨을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추석을 맞이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가족들과 맛있는 것을 먹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도 가족도 이웃도 즐거움을 누리는 추석을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하기

1.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2.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식사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나눠봅시다.
3.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생각을 나눠보고 실천해 봅시다.

